

올해도 정부 곳간은 '풍년' 1~2월 세금 3.7조 더 걷혀

소득세 수입 16조9000억...법인세는 3000억 감소



연초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4조 원 가까이 증가 올해도 세수 호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4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세수진도율도 높아져 세금이 더 잘 걷힐 모양새다.

2월까지 세수진도율은 18.6%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향상됐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갈 세금 대비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2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1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증권거래세도 큰 폭 늘었다. 2월까지 1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전년에 비해 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15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는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반면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중 2월까지 집행액은 5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18.4%다.

1~2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00억원 흑자다. 누적 총수입은 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76조5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조8000억원)를 제외해 산출한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44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조2000억원 증가했다.

뉴스스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시작...사용료 1000원

택시 기사 인센티브 제공...호출 응답 유도

카카오택시가 10일 유료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용료는 1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새로운 호출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자 인식 조사 및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 호출 기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책정했다"며 "스마트 호출 기능을 활용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카카오 T 앱에 등록해둔 신용·체크카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된다"고 밝혔다.

이윤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 기사 회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 추가 ▲특정 호출 편중 방지 등 다양한 신규 기능과 정책을 공개했다.

택시 기사 회원에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인 '포인트 시스템'은 기사 회원에게 호출 응답, 이용자 별점 평가 등에 따라 적립·환급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해 이동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더 많은 택시가 호출에 응답하도록 유도했다.

승객의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 줄 수 있는 AI 배차 시스템 '스마트 호출' 기능도 추가했다.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예상 거리와 시간, 과거 운행 패턴, 교통 상황 등을 분석해 호출을 응답할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전달해줄도록 했다.

일부 기사들이 스마트 호출민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스마트 호출 목적지는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기사는 스마트 호출을 수락한 후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호출에 응답한 기사 목적지를 확인한 후 연결을 취소하면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 호출에 응답할 수 없게 된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양한 기능과 정책으로 기존의 연결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결 기회를 창출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제철 맛은 달콤한 파파야멜론으로 피로 날리세요!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최민도)는 1층 푸드마켓에서 제철을 맞아 싱싱한 파파야 멜론을 선보이고 있다. 파파야 멜론은 4~5월에만 맛볼 수 있는 과일로, 최대 17브릭스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고 염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탁월하다. 이색적인 외형이 눈길을 끄는 파파야 멜론은 후속 과일이기 때문에 구매 후 상온에서 2~3일간 숙성하면 더욱 맛이 좋다. 가격은 1개에 3천9백 원이다.

뉴스스

백화점,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 되나...롯데도 고심 중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백화점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현행 하루 9시간 근무로 운영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점포 직원들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8시 퇴근하는 9시간 근무체제로 일하고 있다. 주 45시간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근무형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분위기와 추세에 맞춰 다양한 근로시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점포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겨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까지 백화점 전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후 7시30분 퇴근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 점포 직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오후 7시30분에 퇴근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오후 8시까지 지는 팀장 1명, 총별 1명 등 점포별로 약 10명의 직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현대백화점은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공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가장 먼저 내놨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x5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세계는 임금 하락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금 하락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불리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점포 운영을 놓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직원 다수가 일찍 퇴근을 하면 안전관리 등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 기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